



장루관리 안내

이 책은 장루를 가지고 생활하게 되는 암환자와 가족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장루 관리 안내서'가 퇴원 후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01	장루란?	01
02	소화기관의 구조와 기능	02
03	장루의 종류와 형태	03
04	장루 제품 소개	06
05	교환방법	08
06	장루관리	10
07	장루 관련 합병증	17
08	자주 문의하는 질문과 답변	20
09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증상	26
10	보험적용 및 장애진단/판정 기준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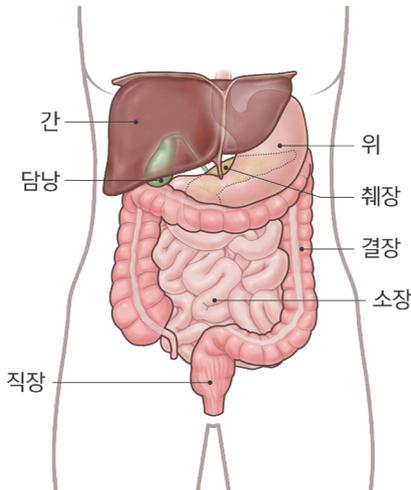
01. 장루란?

장루는 외과수술에 의해 생긴 장출구로 변을 내보내기 위한 우회로입니다. 장루는 신체의 일부분인데 이것은 소장이나, 대장의 일부를 복벽 밖으로 빼내어 피부와 함께 봉합한 것입니다. 장루의 정상 색깔은 붉은색으로 뺨의 안쪽 색깔과 유사하며, 신경이 없어 만져도 아프지 않고 자극을 주면 약간의 출혈이 있을 수 있으나 꼭 누르고 있으면 곧 멈춥니다. 장루의 크기와 모양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수술 후 차차 작아지기 시작하여 5~6주 후에는 거의 자기 모양과 크기를 갖게 됩니다. 장루는 근육 조절 능력이 없어 배변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관리가 필요합니다.



02. 소화기관의 구조와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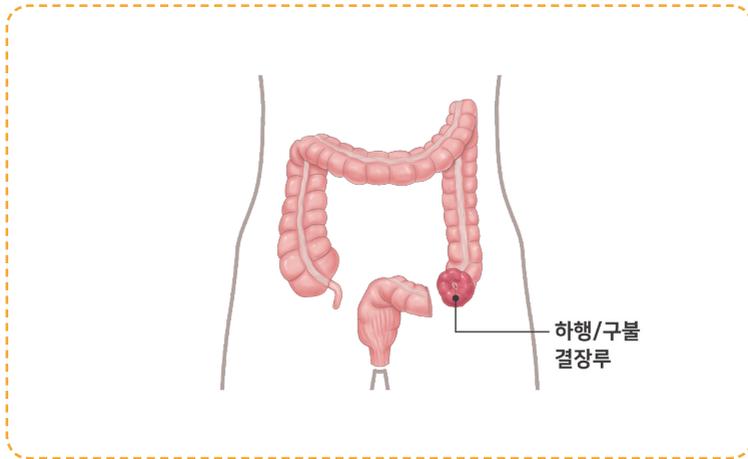
소화기관은 입에서 항문까지 연결된 긴 관을 말합니다. 음식을 씹고 삼키면, 음식은 식도를 지나 위를 거쳐 소장으로 내려갑니다. 소장은 장에서 제일 긴 부분을 차지하며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흡수하는 기능을 하고 대부분의 소화가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대장은 소장에서 시작하여 항문까지 연결되는 길이 약 150cm, 지름 약 5cm인 기관입니다. 대장은 그림과 같이 결장과 직장으로 나누어지고 결장은 다시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및 구불결장으로 나뉘지며 음식물이 통과할 때 수분을 흡수하고 대변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직장은 항문에서 12~15cm까지의 부위를 말하며 배변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03. 장류의 종류와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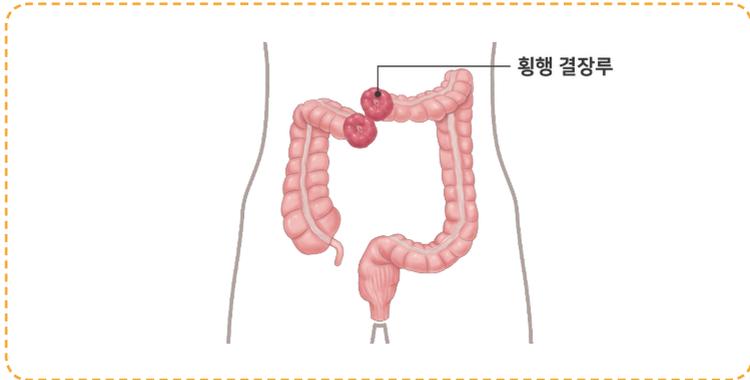
○ 하행/구불결장루

복부의 왼쪽 아래에 위치하며 하행결장이나 구불결장으로 만든 장루입니다. 대장의 대부분이 기능을 하므로 변은 평상시와 같은 상태로 배출됩니다. 환자의 선호에 따라 주치의 허락 후 장 세척의 방법으로 배변 관리가 가능한 장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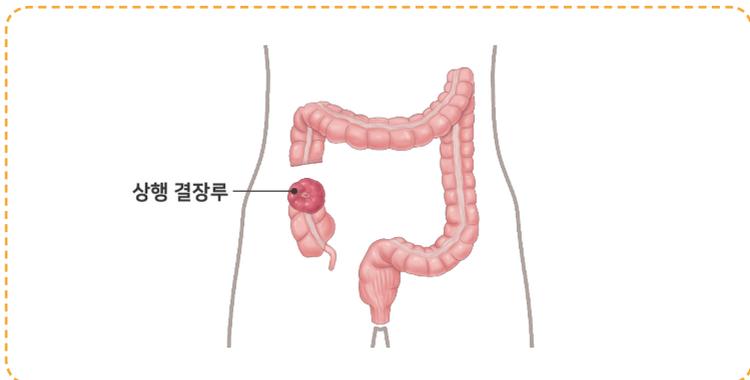
○ 횡행결장루

복부의 위 중앙에 위치하며 횡행결장을 이용하여 루프로 장을 들어 올려 만들어진 장루입니다. 변은 죽과 비슷한 형태로 약간 되직하게 나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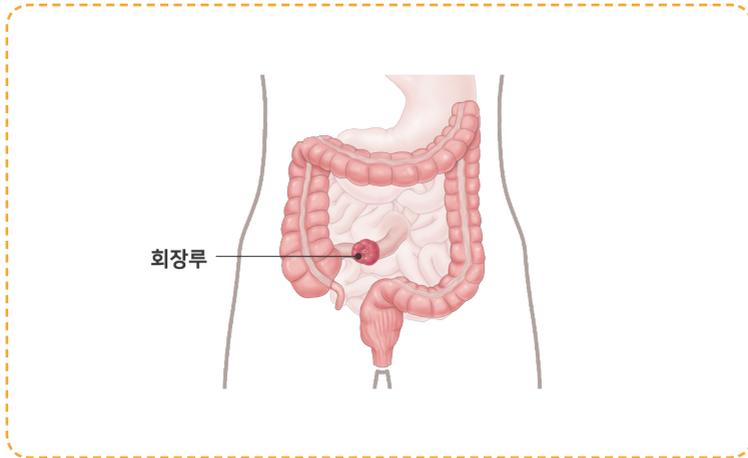
○ 상행결장루

우측 하복부에 장루가 위치합니다. 대변은 묽거나 반유동형태로 소화 효소가 함유되어 피부자극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회장루

복부의 오른쪽 또는 왼쪽 아래에 위치하며 소장의 끝부분인 회장으로 만든 장루입니다. 하루에 500~1,000cc 정도의 묽은 변이 배출됩니다. 다량의 소화효소가 함유된 묽은 변이 배출되므로 피부에 변이 계속적으로 접촉될 경우 장루 주변 피부에 자극을 잘 일으킵니다.



04. 장루 제품 소개

장루 제품

피부보호판, 장루 주머니, 틈막음 연고, 피부보호 파우더,
피부보호 필름

+ 피부보호판, 장루 주머니

배설물로부터 장루 주위 피부를 보호하는 피부보호판의 보호막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피부에 부착되어 배설물이 새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 틈막음 연고

피부 표면의 작은 홈을 메워 표면을 평평하게 하고 피부와 피부 보호판 사이의 틈새를 막아줍니다.

+ 피부보호 파우더

장루 주위 피부 손상 시 손상된 피부에서 분비되는 삼출물을 흡수하여 젤 형태로 변하여 상처를 보호합니다.

+ 피부보호 필름

장루 주위 피부에 얇은 보호막을 형성하여 피부 자극을 줄입니다.

보조용품

접착제거제(리무버), 장루 벨트, 장루용 복대

+ 접착제거제(리무버)

접착제거제는 피부보호판 또는 테이프를 제거하거나 접착제를 제거한 후 남아있을 수 있는 잔여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장루 벨트

복부의 굴곡이 있거나 장루의 높이가 낮아 누출이 있을 때 피부 보호판을 단단히 고정시키거나, 다양한 피부상태에 맞추어 장루 배출물이 새는 것을 방지합니다.

+ 장루용 복대

장루 부위 복부에 적당한 압력을 제공하여 탈장을 예방하며 장루를 부드럽게 지지해 줍니다. 착용이 간편하여 장루관리가 용이합니다.

05. 교환방법

장루 부착물은 정기적으로 교환하는데, 배설물이 새면 즉시 교환하여야 합니다. 장루는 2~4일에 한 번씩 피부보호판을 교환하도록 권장합니다. 교환시기는 장루의 활동이 적은 식사 전이 좋습니다.

- 1 이미 부착되어 있는 장루 주머니와 피부보호판을 접착제거제를 이용하여 부드럽게 제거합니다. 피부에서 피부보호판을 제거할 때는 한 손으로 피부를 눌러주어 피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떼어 냅니다.
- 2 장루 주위 피부를 물티슈나 젖은 수건으로 깨끗하게 닦으며 장루 점막을 너무 세게 문지르지 않도록 합니다. 필요시 장루 주위 피부의 털을 면도합니다.
(면도 시에는 반드시 장루 안쪽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시행해야 장루 점막에 상처를 주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3 장루의 크기를 모양자로 잽니다. 모양이 원형일 경우 자를 이용하고 불규칙할 경우 분을 떼서 그릴 수도 있습니다.
- 4 장루용 곡가위를 이용하여 측정한 장루의 크기대로 피부보호판을 오릅니다.
- 5 장루 주변 피부에 필요시 피부보호 파우더와 피부보호 필름을 적용합니다.
- 6 피부보호판에 붙어있는 비닐을 떼어냅니다.

-
- ⑦ 필요시 틈막음 연고를 오려낸 피부보호판 안쪽에 얇게 바릅니다.
(링은 장루모양에 크기를 조절하여 적용합니다)
 - ⑧ 피부보호판을 피부에 부착시킵니다.
 - ⑨ 부착한 후 손이나 뽀족하지 않은 면봉으로 잘 눌러주어 부착이 잘 되도록 합니다.
 - ⑩ 부착된 피부보호판에 장루 주머니를 끼웁니다.
 - ⑪ 장루 주머니 방향을 조정한 다음 잠금장치를 잠급니다.
 - ⑫ 장루 주머니 하단 배출구 부분을 접어올려 닫습니다.
 - ⑬ 교환 후 부착이 잘되도록 15분 정도 따뜻한 손으로 살짝 눌러줍니다.

06. 장루관리

식사

○ 회장루 환자

회장루를 가진 환자는 수분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수분 섭취가 너무 적게 되면 탈수되기 쉬우니 하루 1.5~2L 이상의 충분한 수분 섭취를 권장합니다. 장루 수술 후에는 골고루 음식을 먹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 후 종합비타민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회장루는 변이 나오는 구멍이 좁은 편이므로 특히 수술 후 6주간은 아래 열거한 식품 중 장폐색을 유발하는 음식은 조심하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드시게 된다면 많이 씹어서 드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셔야 합니다)

※ 장폐색 유발 식품 : 감, 팝콘, 옥수수, 파인애플, 과일이나 야채의 껍질이나 씨, 샐러리와 같은 섬유질이 강한 야채, 코코넛, 견과류 등



장폐색 유발 식품

○ 결장루 환자

결장루의 경우 수술 전 배변 상태와 같은 고형 변이 배출되나,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섬유소를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결장루의 경우에는 가스와 냄새가 문제가 되는데, 가스는 대장에 쌓여있는 노폐물에 박테리아가 작용하여 생기는 것입니다. 변의 냄새는 구불결장이나 하행결장에 배설물이 장시간 머물수록 증가하게 됩니다. 만약 변 냄새가 심하면 장루 주머니에 넣어서 사용하는 방취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변비와 설사를 일으키는 식이들은 개인마다 다르나 다음에 열거된 식품은 과잉 섭취 시 생길 수 있는 증상이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설사 유발 식품 : 콩류, 땅콩, 호두, 생과일, 생야채, 튀김류, 술, 아이스크림, 우유, 양념이 강한 음식 등
- ※ 변비 유발 식품 : 바나나, 감, 인절미, 옥수수, 고구마, 감자, 땅콩, 떡, 육류 등
- ※ 가스 유발 식품 : 양배추, 양파, 콩류 튀긴 음식, 맥주, 유제품, 탄산음료, 생선, 계란, 튀김류 등
- ※ 냄새 유발 식품 : 달걀, 생선, 치즈, 파, 마늘, 양파, 양배추, 콩류, 맥주, 비타민제 등



설사 유발 식품

냄새/가스조절

냄새를 유발시키는 식품 섭취를 자제함으로써 다소 냄새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머니에 탈취제를 부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스를 형성시키는 식품(콩, 맥주, 탄산음료, 양배추, 양파, 마늘, 브로콜리) 일지라도 지연시간(음식 섭취 후 장루를 통해 가스가 나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알고 이러한 음식물의 섭취 시간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장루 주머니를 교환하도록 하여 장루 주머니에 변이 오랫동안 착색되어 냄새가 유발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가스형성은 공기를 삼켜 생기게 되므로 평소에 공기를 삼키는 행동(빨대 사용, 말하면서 식사하기, 껌 씹기,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특히 결장루의 경우 음식물이 소화기 안 되면 가스가 더 생기므로 음식물을 잘 씹도록 합니다.

샤워/목욕

수술 전과 같이 목욕을 할 수 있으며 피부보호판을 떼고 목욕을 하는 경우에 물이나 비누가 장루에 해롭지 않고, 장루 속으로 물이 들어가는 일은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피부보호판을 붙인 채로 목욕을 할 때에는 목욕으로 인하여 접착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방수테이프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샤워를 할 때는 문제가 없으나 통 목욕 중에는 배설물이 나올 수 있으므로 장루 주머니를 부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복

장루 수술을 했다고 입는 옷에 특별히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옷은 너무 꽉 조이지 않도록 하고 신축성 있는 팬티나 거들을 착용합니다. 장루부위를 직접 압박하는 허리끈이나 벨트 등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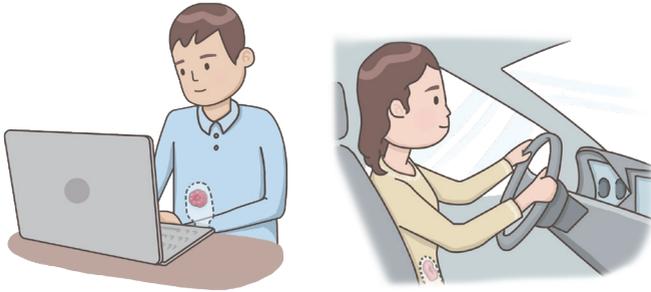
운동

건강이 회복되면 수술 전과 같이 운동을 서서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운동은 쇠약해진 체력을 회복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신체적 접촉이 심하거나 과격한 운동 기구를 들어 올리는 것과 하복부에 무리하게 힘을 가해 복압을 상승시키는 운동은 피하도록 합니다. 수영할 때는 미니 주머니를 부착합니다.



직장/사회생활

기력이 회복되는 대로 큰 어려움이 없이 종전의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일이나 장시간 앉아있는 자세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루로 인해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는 것은 신체적인 제한보다는 정신적인 두려움이 더 크므로 가족들의 긍정적인 지지가 큰 도움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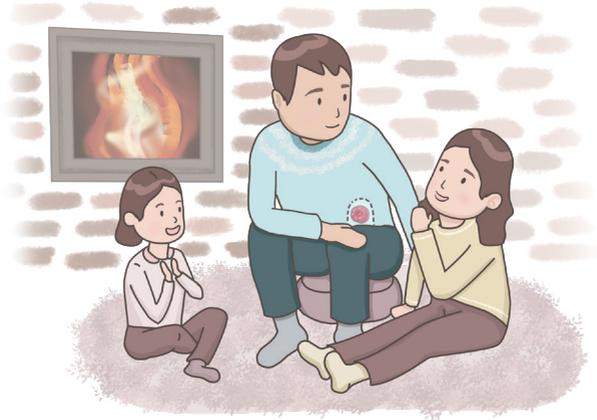


성생활

성기능은 연령, 신체 상태, 수술,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게 됩니다. 장루 보유자에 대한 배우자의 진정한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성관계 직전에는 장루 주머니를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것(미니캡)으로 바꾸거나, 자세를 변경하는 등의 방식으로 성생활을 할 수 있고, 임신 역시 가능합니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뇨기과나 부인과 의사와 상의하고 도움을 받으십시오. 부부 생활로 인하여 장루나 신체에 문제가 되는 일은 없으며 수술이나 장루 자체가 임신을 막는 요인은 아니지만 장루를 형성하게 한 질환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의하도록 합니다.

여가 활동

여가 활동은 장루 보유자의 신체적 상태와 여가 활동에 대한 동기에 의하여 좌우됩니다. 장루 때문에 제한을 받는 일은 매우 적으나 복잡을 상승시키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여행 시에는 여분의 부착물을 준비하고, 수돗물을 바꾸면 설사의 위험이 있으므로 익숙한 물을 미리 준비하거나 시판되는 병에 든 물을 마시도록 합니다. 운동의 경우 몸싸움이 심하여 장루에 상처를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술 전에 즐겼던 운동을 거의 다 할 수 있으나 무거운 운동기구를 들어 올리는 것과 하복부에 무리하게 힘을 가하는 운동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항문주위 불편감(단단함)

일시적인 회장루를 만든 환자의 경우 수술 직후 항문 주위 불편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좌욕을 함으로써 상처치유 촉진과 함께 불편감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항문을 폐쇄한 수술을 한 환자의 경우에는 좌욕은 할 필요가 없으며, 항문 주위 단단함이 수년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스펀지로 만든 방석을 이용하거나 장시간 앉은 자세를 피하는게 도움이 되며,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부관리

대변이 되게 나오면 피부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회장루나 횡행결장루와 같이 대변이 묽게 배설될 경우에는 피부에 자극이 많습니다. 피부보호판을 너무 크게 오려 피부가 배설물에 노출되어 피부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장루 주위 피부를 깨끗하게 닦고 장루용 파우더를 뿌린 후 여분의 분말은 털어내고 피부보호용 필름을 바르거나 뿌리고 피부보호판을 부착합니다. 피부보호판을 부착하기 전 장루 주위의 털을 면도하면 모낭염을 예방할 수 있으며 피부보호판을 제거 시 리무버를 사용하면 물리적인 자극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틈막음 연고에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따가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피부 상처가 있을 시에는 알코올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면 따가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07. 장루 관련 합병증

○ 대변 관련 손상

소화효소를 포함한 배설물(주로 회장루)이 피부에 노출되어서 생기는 것으로, 증상은 피부가 벗겨지고 진물이 나옵니다. 관리 방법은 피부보호판을 장루에 맞게 자르고, 피부보호 파우더를 뿌린 후 피부보호 필름으로 코팅하고, 배설물이 새지 않도록 틈막음 연고(또는 피부보호판)로 잘 메꾸어 주어 배설물이 피부에 더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알러지 관련 손상

피부보호판을 피부보호 필름 또는 피부 청결제 등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달았던 부위의 홍반이나 가려움이 특징입니다. 관리는 알러지를 일으키는 원인 제품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그 제품의 사용을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 탈장

복직근이 약한 경우, 장시간 서 있는 경우, 무거운 것을 많이 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서 장루 주위 피부가 볼록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를 탈장이라고 합니다. 관리 방법은 복대를 사용하거나 체중을 조절하여 배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장기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자세를 피하며 배변 시 힘을 주지 않도록 하여 탈장을 예방해야 합니다. 아주 심한 경우 주치의와 상담 후 경우에 따라 외과적 교정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장탈출

복직근의 지지가 약해진 경우나 복수 등으로 복압이 상승된 경우 또는 지방층이 많은 경우에 장이 이전 크기보다 크게 밖으로 튀어나오는데 이를 장탈출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똑바로 누워 손으로 부드럽게 누르면 다시 장이 들어가며, 급한 경우 설탕을 장루에 뿌려두면 일시적으로 장루의 크기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10cm 이상 장이 나오고 위의 방법으로도 들어가지 않는 경우, 또 장루 점막의 색깔이 검게 변한다면 억지로 장을 집어넣지 말고, 부착된 피부보호판을 조심스럽게 제거한 후 깨끗한 수건으로 장루를 덮고 병원을 방문하도록 합니다.



08. 자주 문의하는 질문과 답변



피부보호판을 몇 년 동안 계속 같은 것으로 사용하였는데 최근에 변이 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Q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체중의 변화가 있거나 특히 복부의 굴곡 정도가 변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로 인하여 장루가 함몰된 경우에, 장루 주변을 눌러주어 장루가 튀어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함몰형 피부보호판으로 바꾸고 장루 벨트를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정확히 분석한 후 해결해야 하므로 장루 전담 간호사에게 상담하도록 하세요.



A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자주 장루 주머니가 터지는 사고가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Q

먼저 취침 전에 장루 주머니를 꼭 비우세요. 그리고 취침 2~3시간 전에는 간식이나 물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장루 주머니를 다른 것으로 바꾸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A



회장루에서 약 6시간 동안 아무것도 나오질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Q

하나의 가능성은 장이 막히는(폐색) 것입니다. 장폐색이 되면 오심, 구토, 복부 팽만감 같은 증상을 같이 호소하는데, 이런 증상이 동반된 상황이라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A



퇴원 후 집에서 갑자기 항문으로 물 같은 것이 흘렀습니다.
괜찮은 건가요?

Q

우선 정상적인 증상입니다. 장루 수술을 하였어도 남아있는 조직에서 정상적으로 점액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 점액이 모여 있다가 환자의 활동이 늘어나면 항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분비물이 나오려고 할 때 변이 마려운 것처럼 항문 주위가 불편해지고 때로는 아랫배에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분비물에는 약간의 피가 섞여 나올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다량의 선홍색의 피가 함께 나오는 경우에는 병원으로 연락해야 합니다.



A

**Q**

주머니에 계속 가스가 차는데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가스 발생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입으로 마시는 공기와 음식 섭취 후 장의 연동 운동에 의해 발생합니다. 수술 후 첫 일주일 동안은 정상적으로 가스 생성이 많으며 추후에는 음식물의 섭취로 가스 생성의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양파, 계란, 콩, 탄산음료, 양상추, 오이 등은 가스를 많이 형성하는 음식이므로 조절하여 드시고, 화장루의 경우 대부분의 가스 형성은 공기를 삼켜 생기게 되므로 빨대 사용, 식사하면서 말하기, 껌 씹기, 흡연 등의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가 주머니에 지나치게 차지 않도록 수시로 가스를 빼주고(주머니의 하단을 열어) 가스필터를 이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스가 나올 때 소리가 걱정되는 경우에는 가스가 나온다고 생각될 때 장루 위에 손을 대고 허리를 약간 구부리면 소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A**



장루를 통해서 감염이 될 것 같아 소독제를 사용해서 깨끗하게 하고 싶은데 괜찮은 건가요?

Q

장루 주위에는 굳이 알코올, 베타딘 등 소독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소독제가 피부에 자극에 될 수 있으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생리식염수, 수돗물, 물티슈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잔여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하고 피부가 건조하도록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A



직장에 출근하는데 저에게 냄새가 날 까봐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Q

냄새는 장루 환자들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장루 주머니는 기본적으로 냄새 방지 기능이 있으며 주머니에 차 있는 배설물을 비울 때 주머니 끝단에 대변이 묻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고 냄새를 유발하는 음식을 피하거나 시판되는 방취제를 사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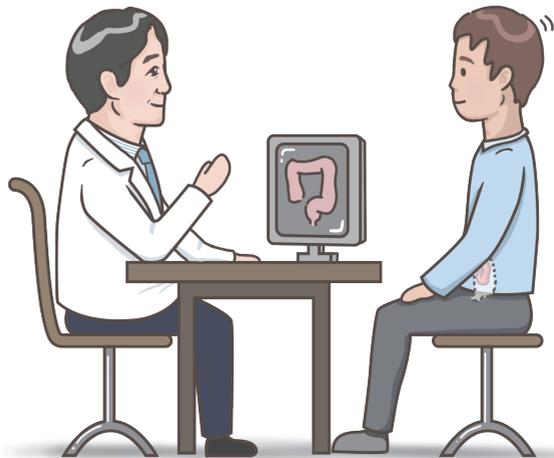
장루에서 자꾸 피가 나고, 장루에 뽀루지가 생겼어요,
건드리면 자꾸 피가 나는데 괜찮은 건가요?

Q

장루 점막의 과형성이라고 합니다. 이와같이 좁쌀 같은 뽀루지가 생기는 원인은 피부보호판을 부적절하게 크게 올려내거나 대변이나 수분이 계속 장루점막에 붙어 있어 피부나 장루 점막에 자극이 되어 발생합니다. 예방법은 피부보호판을 너무 크게 올려내지 말고 장루 주머니 거꾸로 물을 넣어 위쪽을 헹궈내는 방법을 금지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장루 전담 간호사에게 관리방법을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A





장세척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Q

장세척은 영구적 인공항문 중 구불결장루나 하행결장루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장의 기능이 정상인 경우, 항암화학 요법이나 방사선 치료가 끝 난지 3개월 이후에 개인의 선호에 따라 할 수 있지만 장탈출 및 장루 주위 탈장, 노인이나 어린아이의 경우는 장세척을 권하지 않습니다. 장세척의 장점은 불규칙하게 나오던 변과 가스로 인한 불편감을 감소시키고 장루 주머니를 부착하지 않아도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일상생활을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세척을 원하는 경우에는 담당 주치의와 상의 또는 장루 전담 간호사의 교육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문의해 주세요.



A

09.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증상

- 2~3시간 이상 지속되는 복통이 있을 때
- 장루에서의 과도한 출혈이 있을 때
- 심한 피부 자극, 가려움 혹은 심한 궤양이 있을 때
- 장루 크기의 이상적인 모양 또는 색깔 변화가 있을 때
- 5~6시간 이상 지속되는 심한 액체 배설물이 있을 때
- 피부보호판이 1~2일에 한 번씩 떨어질 때
- 대변 누출이 자주 있을 때



10. 보험적용 및 장애진단/판정 기준

○ 보험적용

장루 용품	제한 개수
파우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60g 이내 인정
틈막음 연고와 피부보호판 ※ 동시 사용은 인정하지 않음 다만, 피부관련 합병증 등 발생 시 사례별로 동시 사용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Paste: 60g/월 이내 인정 피부보호판: 대 1개/주, 소 2개/주, 막대형 2개/주, 하프링 2개/주 중 한 가지를 인정
보조 소변 주머니 (Leg Bag/소변 주머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이 가능한 환자가 장시간 외출 시
복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술 후 1개 인정 탈장 또는 루(Ostomy)의 탈출 등이 발생한 경우 사례별로 인정
고정용 벨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례별 인정

○ 장애진단/판정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2003년 7월 1일부터 장루보유자는 장애진단/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알기 원하시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장애인 복지 심의관실 → 장애인정책과)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보건복지부 정책담당(1588-0420)에 문의하시면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청하는 방법

- 1 본인의 관할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장루 장애 등록 관련 구비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구비 서류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내원 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2 수술한 외과 전문의로부터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기타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 3 외과 전문의는 수술기록지, 병리소견서, 진단서, 진료기록에 의거하여 객관적으로 장애 정도를 판정하게 됩니다.
- 4 발급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기타 서류를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 5 서류를 검토한 후 장애인 등록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구비서류
안내



진단서와
기타서류 발급



등급
판정



진단서와
기타서류 제출



등록증
교부

2) 장애진단 및 판정 시기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의 경우에는 장루조성술 이후 장애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의 경우에는 장루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장애진단이 가능합니다. 복원수술이 가능한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 이후 매 3년 이후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받아야 하며, 재판정 시에는 복원수술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 등 장애의 상태가 고착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무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루 관리 안내

버전 · 발행일	ver.2.0, 2023년 3월
발행	국립암센터
원고 · 일러스트	홍용은 · 이우정 · 채수현



기관

본 자료는 국립암센터 공익적암연구사업(과제번호 : 1911275)의 지원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